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시황/ESG Analyst 이성훈 shl076@kiwoom.com



미 증시, 관세, 연준 등 트럼프의 유화적 스탠스에 힘입어 상승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23일(수) 미 증시는 미중 무역 갈등 완화 기대감과 트럼프의 파월 연준의장의 해임은 없다 등의 발언을 통해 위험 선호 심리 회복됨에 따라 주요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한 결과 3대 지수는 상승 마감 (다우 +1.07%, S&P500 +1.67%, 나스닥 +2.50%).

이 날 미 증시를 끌어올린 배경은 1) 미국의 대중 관세 완화 기대감과 2) 트럼프가 파월 연준 의장을 해임하지 않겠다는 발언에 기인. WSJ에 따르면 현재 백악관이 대중 관세율에 대한 인하(관세율 145% → 50~60%)와 품목별 관세를 국가 안보 위협에 따라 35% 및 100% 이상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장 마감 이후 트럼프는 자동차 업체에 대한 부품 관세 일부 면제할 계획이라고 언급). 또한, '파월 연준의장을 해임할 생각이 없다'라는 발언을 통해 최근 금융 시장 변동성을 높인 배경이었던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도 한층 완화.

최근 미국 증시, 국채 가격, 달러화 가치가 트리플 약세를 보이면서 트럼프 경제 정책 지지율이 급락(로이터, 23일 기준 37%)하고 있는 가운데 단기적으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속도조절에 진입한 것으로 보임. 또한, 비록 이 날 베센트 재무장관은 '중국과 협상까지 2~3년 걸릴 것'이라고 발언하며 시장 상승폭이 축소되었음에도, 비교적 합리적으로 평가받는 베센트 재무 장관의 경제 정책 언급 빈도가 높아졌다는 점도 증시에 긍정적 요인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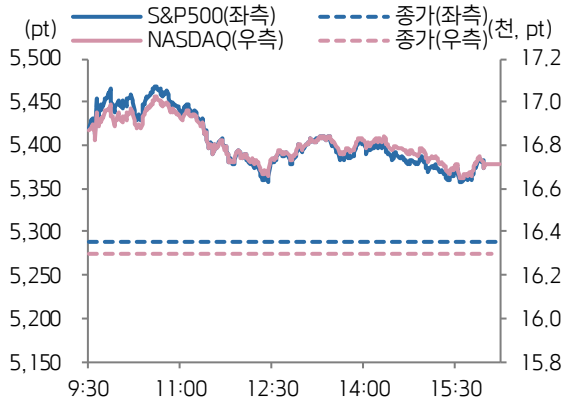
또한, 확정지는 아니지만 5월 혹은 근시일 내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점도 시장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요인. 그 외에 베센트 장관의 7월 국회에서의 감세안 통과 가능성 시사와 규제완화로의 정책 초점 이동 등의 발언 등에서 비추어봐도 현재 흐름은 관세 영향권에서의 민감도가 낮아지고 있는 환경. 결국, 현 시점은 단기적으로 시장 심리가 위험 선호 회복 구간으로 진입함에 따라 밸류에이션 부담이 완화된 종목 중심으로 저가매수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국면이라고 판단.

전일 국내 증시는 트럼프 발언에서 기인한 연준의 독립성 우려 훼손 완화와 미중 관세 전쟁 완화 기대감이 부각된 결과 반도체, 자동차 등 관세 피해 업종 중심으로 상승한 영향으로 양 지수는 상승 마감 (코스피 +1.57%, 코스닥 +1.39%).

금일 국내 증시도 미중 무역 갈등 완화 기대감에서 비롯한 미 증시 반등과 연동하여 상승 출발할 것으로 전망. 특히, 국내 주식시장은 상호관세 이슈가 불거졌던 4월 이후 가장 빠르게 반등하여 현재 주요국 중 유일하게 플러스(+)권 수익률을 회복 (4월 이후 수익률, 코스피 +1.8% vs 독일 -0.9%, 중국 -1.2%, 영국 -2.1%, 일본 -2.1%, 이탈리아 -4.2%, S&P500 -4.2%, 홍콩 -4.5%, 대만 -5.1%, 베트남 -7.3%). 여전히 밸류에이션 매력도를 보유한 가운데 조기 대선 국면 기대감 등으로 국내 주식시장의 미국 대비 상대 우위현상 지속될 수 있다고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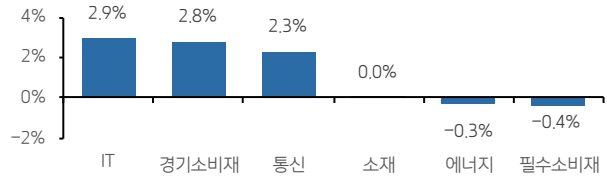
한편, 금일에는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주요 기업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며 실적에 따른 종목별 차별화 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또한, 금일 저녁 9시부터부터 한미 관세 협상이 개시될 예정. 금번 한미 관세 협상은 대선이 치러지기 전임을 감안시 탐색전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금일 증시는 협상 기대감을 일부 반영할 것으로 판단.

S&P500 & NA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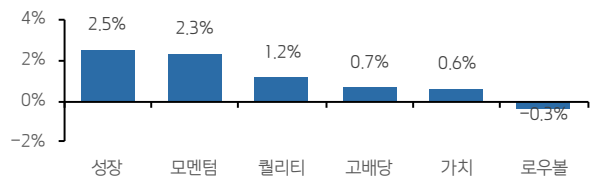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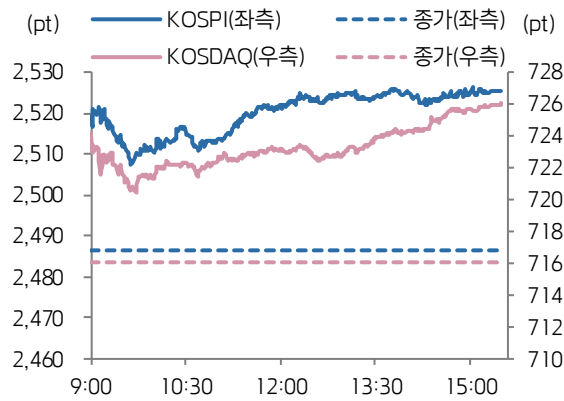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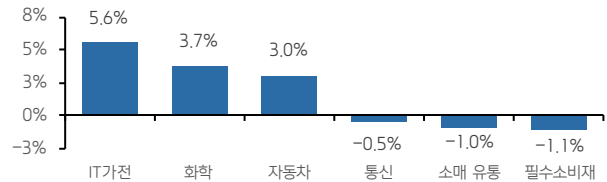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KOSPI & KO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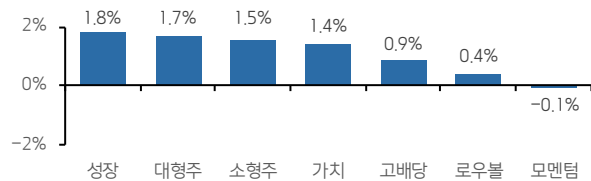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종목

종목	종가	DTD(%)	YTD(%)	종목	종가	DTD(%)	YTD(%)
애플	204.60	+2.43%	-18.21%	GM	45.84	+1.51%	-13.73%
마이크로소프트	374.39	+2.06%	-11%	일라이릴리	829.42	+0.23%	+7.62%
알파벳	155.35	+2.56%	-17.84%	월마트	94.96	+0.12%	+5.39%
메타	520.27	+4%	-11.06%	JP모건	240.88	+2.25%	+1.63%
아마존	180.60	+4.28%	-17.68%	엑손모빌	107.37	-0.86%	+0.71%
테슬라	250.74	+5.37%	-37.91%	세브론	136.68	-0.45%	-4.59%
엔비디아	102.71	+3.86%	-23.51%	제너럴일렉트릭	94.96	+0.1%	+5.4%
브로드컴	176.91	+4.32%	-23.46%	캐터필러	295.77	+1.58%	-17.77%
AMD	90.39	+4.79%	-25.17%	보잉	172.37	+6.06%	-2.62%
마이크론	72.93	+3.87%	-13.23%	넥스트에라	67.27	+0.9%	-5.4%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2,525.56	+1.57%	+5.25%	USD/KRW	1,427.20	+0.22%	-3.06%
코스피200	333.94	+1.62%	+5.07%	달러 지수	99.84	+0.93%	-7.97%
코스닥	726.08	+1.39%	+7.06%	EUR/USD	1.13	-0.92%	+9.29%
코스닥150	1,194.96	+2.03%	+5.77%	USD/CNH	7.29	-0.37%	-0.72%
S&P500	5,375.86	+1.67%	-8.6%	USD/JPY	143.45	+1.33%	-8.75%
NASDAQ	16,708.05	+2.5%	-13.48%	채권시장			
다우	39,606.57	+1.07%	-6.9%	가격	DTD(bp)	YTD(bp)	
VIX	28.45	-6.93%	+63.98%	국고채 3년	2.333	+0.8bp	-26.2bp
러셀2000	1,919.14	+1.53%	-13.95%	국고채 10년	2.592	-2.8bp	-27.9bp
필라. 반도체	3,983.92	+3.96%	-20%	미국 국채 2년	3.871	+5.2bp	-37.1bp
다우 운송	13,509.52	+1.06%	-15.01%	미국 국채 10년	4.381	-2bp	-18.8bp
상해종합	3,296.36	-0.1%	-1.65%	미국 국채 30년	4.822	-5.5bp	+4.1bp
항생 H	8,116.28	+2.08%	+11.34%	독일 국채 10년	2.497	+5.4bp	+13bp
인도 SENSEX	80,116.49	+0.65%	+2.53%	원자재 시장			
유럽, ETFs				가격	DTD(%)	YTD(%)	
Eurostoxx50	5,098.74	+2.77%	+4.14%	WTI	62.27	-2.2%	-11.26%
MSCI 전세계 지수	796.26	+1.68%	-5.36%	브렌트유	66.12	-1.96%	-11.41%
MSCI DM 지수	3,487.99	+1.86%	-5.93%	금	3,294.10	-3.66%	+22.36%
MSCI EM 지수	1,073.79	+0.17%	-0.16%	은	33.55	+1.95%	+14.72%
MSCI 한국 ETF	55.60	+1.44%	+9.26%	구리	484.35	-0.71%	+20.29%
디지털화폐				BDI	1,261.00	+0%	+26.48%
비트코인	93,686.03	+2.75%	-0.03%	옥수수	479.25	-0.83%	+2.24%
이더리움	1,796.28	+5.9%	-46.32%	밀	543.50	-1.23%	-4.57%
				대두	1,050.25	+0.41%	+1.5%
				커피	385.75	+3.49%	+25.06%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4월 23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